



회화, 설치 작가
김지은

예술인명		김지은	
소	개	김지은은 거대한 도시 풍경의 이면에 숨겨진 사회적 제도와 법규들을 평면이나 설치작업으로 다루며, 현대사회의 '제도화된 풍경'을 역설한다. 이를 위해 김지은은 주로 자신이 거주하거나 경험했던 주변환경을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서 조사하고 분석해 그 고유의 장소성과 가치를 탐구한다.	
주 교 이	요 육 력	2009.05	크랜브룩 아카데미 오브 아트, 페인팅과 MFA
		2005.08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석사
		2000.02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학사
개 인 전		2020.09	<택지개발자의 도시>, 레이블갤러리, 경기
		2017.11	<궤적의 재구성>, 블루메미술관, 서울
		2016.08	<변덕스러운 땅>, 갤러리시몬, 경기
		2014.05	<폐허의 건축>, 두산갤러리, 뉴욕
단 체 전		2018.12	2018 <2018 공공하는 예술: 환상벨트>, 돈의문 박물관마을, 서울, 한국
		2016.12	<산책자의 시선>, 경기도 미술관, 안산, 한국
		2016.09	<어느 곳도 아닌 이곳>, 소마미술관, 서울, 한국
		2015.04	<Korean Contemporary : Fusion> 론만도스 갤러리, 암스테르담, 네덜란드
		2012.07	<아트 스펙트럼 2012>, 삼성미술관 리움, 서울, 한국
소	장	2018.00	<조감하는 시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2016.00	<만능컨테이너 프로젝트>, 서울시립미술관, 서울
상	훈	2014.01	송은미술대상 우수상
		2012. 10	두산연강예술상 미술부문 수상

프로젝트명 : <화성에서의 삶>, 2020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주요 내용(요약)

고양시 벽제에서 이주해 새롭게 정착한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에서의 삶에 관한 신작 프로젝트이다. 개발이 마무리된 신도시에서는 지역색도 역사도 기억도 찾을 수 없는 지구계획으로 그어진 선을 넘어서면 아무것도 없는 벌거벗은 땅에 얼기설기 가림막이 쳐져 있을 뿐이다. '한국형 서버비아(Suburbia: 자동차 중심의 미국 교외 지역의 생활 양식)'가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하는 화성에서의 삶은 작가로서 한 명의 시민으로서 이 화성이라는 장소를 어떻게 이해하고 여기에 뿌리를 내리고 살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게 하였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이 프로젝트의 핵심 과제이다.

화성이라는 장소가 택지개발이라는 이름으로 과거의 사건을 지우는 과정, 그리고 새롭게 신도시로 이주해 온 사람들이 만들어갈 새로운 장소성 등을 리서치와 답사를 기반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전국적으로 어디에나 있는 신도시의 삶을 화성을 탐사하는 로봇과 같이 생경한 눈으로 바라보고 냉정하게 진단하고자 하는 시도이며 우리 삶의 큰 부분이 되어 버린 '비장소'(마르크 오제)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살아가는가에 대해 소통해 보고자 하는 기획이다.



<모델하우스 화성시1>, 리넨에 유채, 130.3x193.9(cm), 2020



<화성 풍경-바리케이드>, 캔버스에 유채, 97x130.3(cm), 2020

프로젝트명 : <만능 컨테이너 프로젝트>, 2016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주요 내용(요약)

해상 운송용으로 개발된 컨테이너는 규격화되어 쉽게 트럭으로 운반할 수 있고 지게차나 크레인으로 옮기거나 쌓을 수 있다. 가장 흔한 회색 컨테이너는 경비실, 사무실, 창고뿐 아니라 노인정, 작업실, 숙소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중고로 팔 수도 있는 컨테이너는 사물(상품)과 건물(공간)의 두 가지 특성을 다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다용도 컨테이너는 매우 창의적인 용도로 사용되기도 한다. 때로는 산성 불리는 바리케이드로 때로는 크레인을 활용해 진압용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국제 물류 유통을 가능하게 하는 화물수송용 컨테이너는 상품의 유통은 가능하게 하지만 바리케이드가 되어 사람의 흐름을 막는 용도로 사용되는 상반된 두 얼굴을 모두 가지고 있다. 무엇이든 담을 수 있는 용기인 컨테이너는 우리의 결정에 따라 상품을 담기도 하고 삶의 공간을 담기도 하며 모래주머니, 전투경찰을 담기도 하는 것이다. 주변을 유심히 둘러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것, 만능 컨테이너가 숨어있다.



<만능 컨테이너 프로젝트>, 알루미늄 판에 시트지, 가변크기, 2016

프로젝트명 : <택지개발자의 집>, 2009-2015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주요 내용(요약)

미국 교외지역(서버비아)의 전형적인 주택 공사현장을 재현한 <택지개발자의 집>은 지어지기 전부터 노후화가 계획된 소비재로서의 집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2차 대전 직후 급증한 주택 수요에 맞춰 윌리엄 레빗(William Levitt)에 의해 개발된 조립식 가옥은 값싸고 빠르게 지을 수 있지만 내구성이 떨어진다. 집을 짓는 동안 사용되는 수많은 버팀목들은 인간이 중력을 거슬러 무언가는 세우는 일에 대한 단순한 원리를 상기시킨다. 쓰임이 다하면 버려지는 공사중의 폐기물인 버팀목은 미래의 폐기물인 집의 한시적인 운명을 암시한다.



<택지개발자의 집 2015>, 시트지, 각목, OSB, 가변크기, 2015



<택지개발자의 집 2015>, 시트지, 타이벡, 가변크기, 2015

프로젝트명 : <폐허의 건축>, 2012-2014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주요 내용(요약)

한국과 유사한 근대화 과정을 거쳤음에도 서울의 80년대를 떠올리게 하는 대만의 타이베이에 머물면서 어떤 조건이 서울이라는 도시를 개발과 발전(의 이미지)에 집착하게 만든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러한 의문은 서울의 도시계획의 역사를 되돌아보게 하였고 '폐허로부터의 재건'이라는 과제가 현재의 우리 모습에 끼친 영향에 대해 생각해보게 했다. 또한 우리의 부모와 조부모세대가 만들어 놓은 서울이라는 도시를 이해하기 위해선 이야기로만 전해져 오는 역사 속의 일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현재에 되살려 내어 그 세대가 경험했던 것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느꼈다. 이전세대가 겪었던 파괴된 도시의 트라우마와 우리 세대가 일상적으로 경험한 개발과 재개발 현장의 폐허를 암시하는 작업을 통해 서울이라는 도시를 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어떤 망루>, 무늬목 시트지, 1190x527cm,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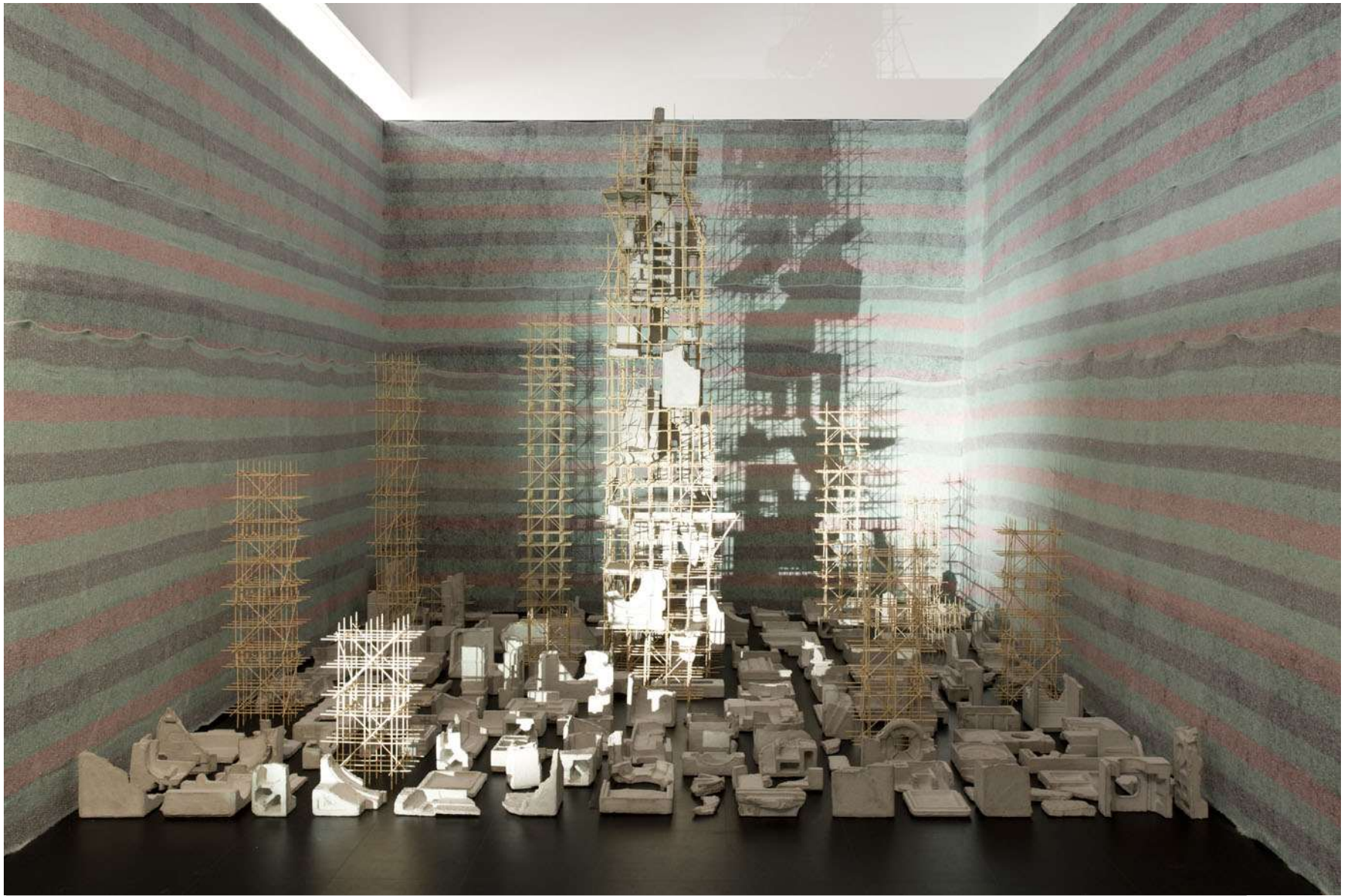
<비계덩어리>, 대나무꼬치, 빵끈, 메탈시트지, 400x600x600cm, 2012



<계획된 진부화-어떤 망루 그리고 폐허>,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3



<조감하는 시선>, 리넨에 유채, 시멘트, 162.2 x 260.6 cm), 2013



<공중누각과 무지개떡 프로젝트>, 혼합재료, 가변크기, 2013-2014

프로젝트명 : <소라게 살이>, 2009-2011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주요 내용(요약)

나의 작업은 외부자도 거주민도 아닌 중간자적 입장에서 거주환경을 경험하고 관찰하면서 나무의 나이트처럼 공간에 새겨진 역사와 이야기들을 찾아가는 것이다. 일상공간에 대한 관심은 도시공간이 수많은 법규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면서 시작되었고 환경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라는 측면을 성찰하는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사회학자나 인류학자와 같은 태도로 과거와 미래가 얹혀있는 현재의 이슈를 다루는 본인의 작업은 항상 거기에 있어서 눈여겨보거나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일상의 (비)기념비를 찾아가는 여정이다. 사람들은 잊었어도 땅이 기억하는 것들을 시추하듯 끌어 올려 현재를 이해하는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이면에 담겨있는 제도와 욕망을 되짚어 보고자 하는 일련의 작업은 삶에 대한 비평적 기능을 하는 예술에 대한 작가로서의 믿음을 담고 있다.



<소유자에 의한 판매>, 캔버스에 유채, 시트지, 췌기목, 타일용 시멘트_137x107(cm),
122x183(cm), 122x122(cm)_2009



<커버드 브릿지-버몬트>, 무늬목 시트지, 마스킹 테이프, 유포지에 유채, 종이에 아크릴릭,

366x305cm, 2009



<옥수수 저장소>, 유리창에 무늬목 시트지, 마스킹 테이프, 223x793cm, 2010



<산 미구엘 성당 성가대 로프트>, 무늬목 시트지, 라인테이프, 488x732cm, 2010

프로젝트명 : <서버비아와 디트로이트>, 2007-2009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주요 내용(요약)

본 프로젝트는 서울이라는 익숙한 환경으로부터 디트로이트 외곽지역이라는 낯선 곳으로의 이주 경험을 통해 얻은 도시에 관한 관점을 시각화한 것이다. 개발 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한 미국에서 도시는 중심에 얹매이지 않고 점점 확장해가지만 이것은 성장이나 발전이라기 보다는 '이동'에 가깝다. 도심보다 규제가 덜한 외곽지역엔 새로운 건물이 지어지지만 버려진 도심은 폐허가 되고 심지어 그 폐허에 자연이 돌아오기까지 한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나는 '발전'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도시를 주어진 환경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삶이 공존하는 역동적인 유기체로 보게 되었다.



<무빙 시티>, 캔버스에 유채_91x137(cm), 2008



<과학의 기적>, 캔버스에 유채, 프린트출력물 콜라주, 122x122(cm), 2008



<계획된 진부화>, 캔버스에 혼합재료, 152x178(cm), 20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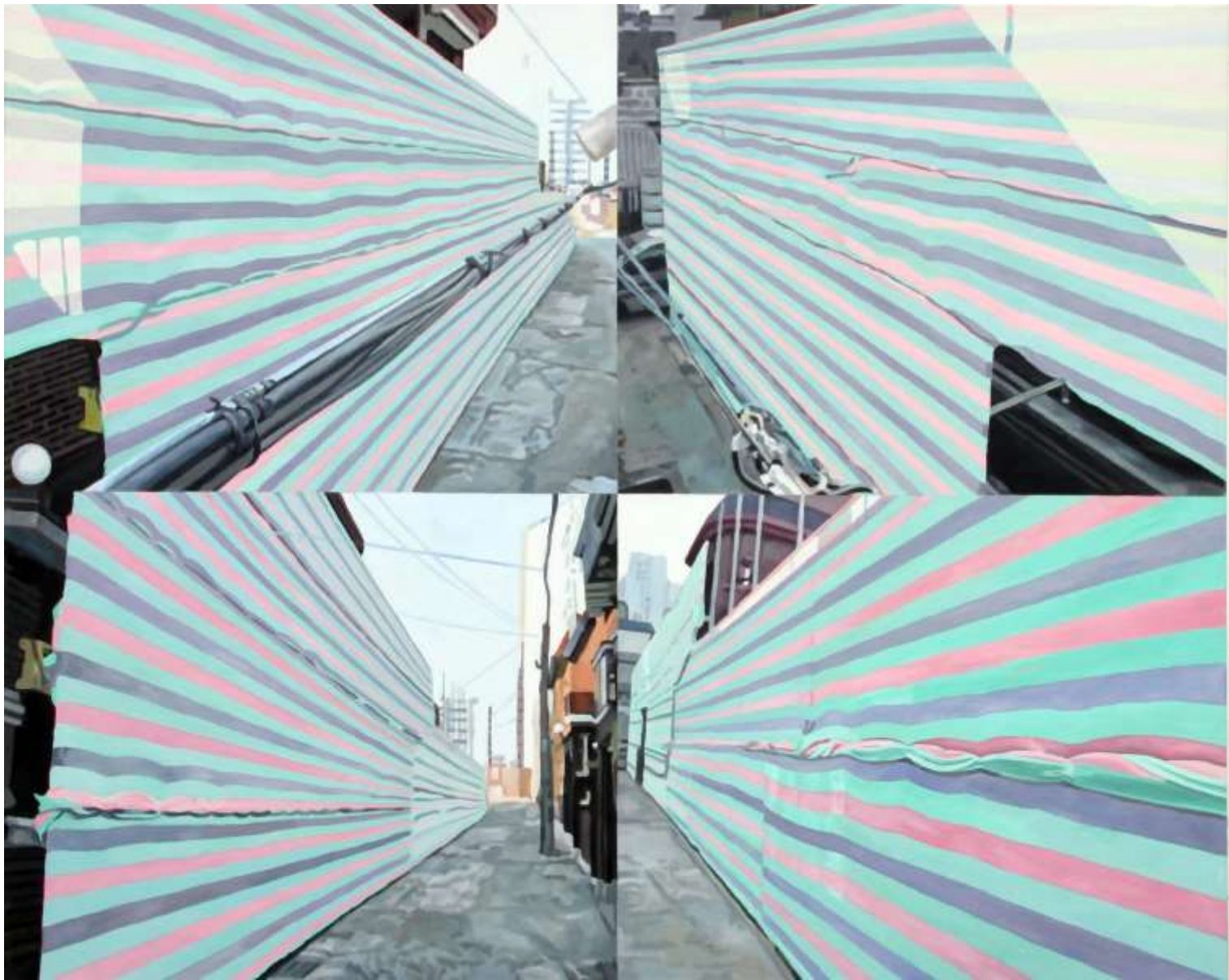
프로젝트명 : <제도화된 풍경>, 2005

아티스트 스테이먼트(작가의 말)

주요 내용(요약)

나의 작업은 일상적 도시 풍경에서 제도적 측면을 읽어내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제도적 측면이란 우리의 실제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법규들을 의미한다. 그 법규들 중에서도 우리의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경관 관련 법규들이다. 이러한 법규들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도시의 공간적 배치와 그 공간의 특성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몸을 지배하고, 그러한 공간적 규율이 일상생활 속에 깊이 파고들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채로 내면화되고 있다는 문제의식 때문이다.

도시의 풍경이 여러 가지 법규들이 외화된 것이라는 관점을 취하게 된 과정은 '무지개떡 프로젝트'라고 명명한 작업에 드러나 있다. 마치 크리스토의 작업을 연상하게 하는 공사장을 에워싸고 있는 무지개떡 무늬의 천은 하나의 이미지로 시선을 끌기에 충분하다. 그러나 그 천이 '방진막'이라는 이름의 비산 먼지를 막는 용도이며 그것의 설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건축전공자의 말을 듣고 나서는 내가 얼마나 도시의 풍경을 개인적인 눈으로 바라봤으며 또 얼마나 시각적인 측면에 경도되어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도시의 풍경을 표피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제도적 풍경'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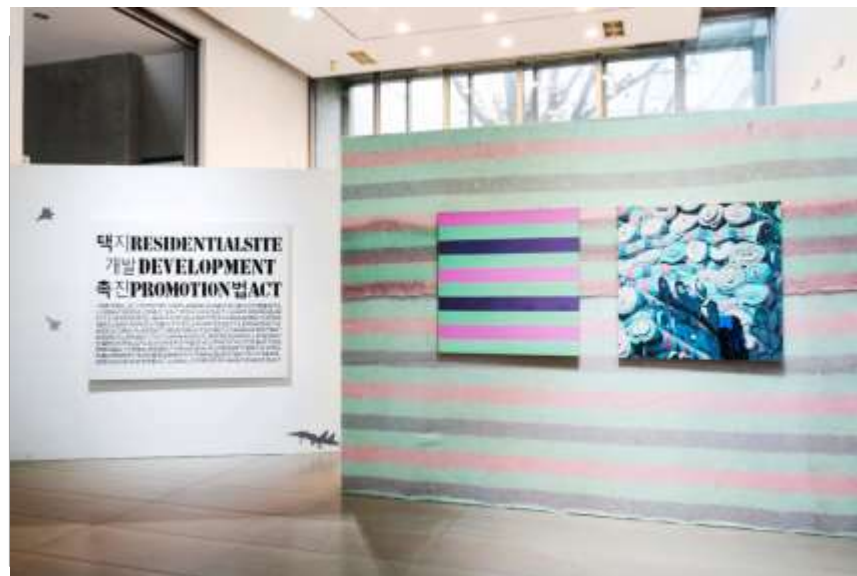


<무지개떡 프로젝트2-강동 성원 상떼빌> 캔버스에 유채, 130.3x162.1(cm), 2004



<방음벽>, 캔버스에 유채, 130.3x162.1(cm), 2004

주요전시 : <궤적의 재구성>



전시일정	2017. 11. 18 ~ 2017. 12. 31
전시장소	블루메미술관(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법흥리 헤이리마을길 59-30)
전시소개	김지은 작가의 일곱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작업의 경향을 역추적하고 각 시기의 비평적 시점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앞으로의 작업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주요전시 : < 궤적의 재구성 >



주요전시 : <궤적의 재구성>

전시 서문

주요 내용(요약)

김지은 작가의 일곱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는 2004년부터 현재까지의 작업의 경향을 역추적하고 각 시기의 비평적 시점에 관한 고찰을 통해 앞으로의 작업의 방향성을 모색한다. 작업에 대해 적정한 거리를 두고 비판적으로 접근해 작가의 작업이 갖는 비평적 기능과 그 유효성에 대해 냉철하게 고민해 보고자 하는 이번 전시는 단순히 여러 시기의 작품을 모아 놓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식과 접근방법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회화를 주된 매체로 시작한 작가의 작업은 점차 설치작업으로 다변화 되어 왔고 서울이라는 도시 공간을 대상으로 시작해 미국, 대만 등의 크고 작은 도시에서의 레지던시를 거치면서 작업의 대상도 지속적으로 변화하였다. 작가가 거주했던 곳에서의 경험을 반영한 작업들은 일견 하늘에 떠 있는 각각의 별처럼 연관성이 없어 보인다. 그러나 별들을 연결해 별자리를 읽어내는 것처럼 작업간의 새로운 맥락을 읽어내는 것은 앞으로의 작업의 방향성을 찾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재구성하고자 하는 궤적은 관성에 의해 움직여 예측 가능한 것이 아니라 별자리와 같이 읽어내는 관점에 따라 유동적인 것이며 이 관점을 통해 작품들간의 관계성을 고민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그 간의 작업을 관통하는 비평적 맥락을 짚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며 작업들의 관계망(네트워크)를 통해 새롭게 작품을 읽어낼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이다.

주요전시 : <변덕스러운 땅>



전시일정	2016. 8. 30 ~ 2016. 10. 28
전시장소	갤러리시몬(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6길 20)
전시소개	도시 내부에서 튕겨져 나온 것들, 도시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들, 도시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가려져 있는 것들과 같은 '변두리'의 이야기를 담은 전시이다.

주요전시 : < 변덕스러운 땅 >



주요전시 : <변덕스러운 땅>

전시 서문

주요 내용(요약)

건축이라는 단어가 한번 지으면 부수기 어려운 견고한 인상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사회에서 대부분의 건축은 '재건축 연한 30년'이 말해 주듯이 임시건축이다. 또한 땅의 용도가 언제 어떻게 변경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변덕스러운 자본의 추이에 대응하기 위해 컨테이너나 비닐하우스, 조립식 창고 같은 가건물들이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풍경은 생활 곳곳에서 발견된다. 어쩌면 자본의 필요에 따라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비정규직의 삶을 가건물들이 대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아이러니하게도 가건축의 주된 재료인 콘크리트의 의미와 그 정치학에 관해 숙고해 볼 수 있는 작업을 회화와 설치로 진행하고자 한다. 회화의 언어와 콘크리트의 언어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수 있을지 실험해보고자 하며 '땅→부동산→주택→담보대출→파생상품→거품→금융화→추상화'라는 일련의 과정을 회화에 적용하여 새로운 회화의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또한 가건축을 유비하는 콜라주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시트지 작업은 벽면을 다층적인 회화의 공간으로 재해석한 설치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 도시 내부에서 튕겨져 나온 것들, 도시 안으로 진입하지 못한 것들, 도시의 삶을 지탱하기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하지만 가려져 있는 것들과 같은 '변두리'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전시 : <소라게 살이>



전시일정	2011. 5. 26 ~ 2011. 6. 25
전시장소	대안공간 루프(서울시 마포구 와우산로29나길 20)
전시소개	이방인으로서 이 곳 저 곳 떠돌며 사는 삶과 계속 바뀌는 낯선 환경이 작업의 소재이자 생존의 수단이었던 작가의 작업을 보여주는 전시이다.

주요전시 : < 소라게 살이 >



주요전시 : <소라게 살이>

전시 서문

주요 내용(요약)

거주하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김지은의 작업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풍경이 도시관리 규범에 의해 제재된 결과라는 인식을 하게 된 것을 기점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환경이라는 큰 틀은 사람의 생활방식과 사고에까지 영향을 미치지만, 현대의 환경이란 결국 사람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고 조성되는 것이다. 한 지역에 오래 머물다 보면 주변 풍경은 마치 오랫동안 걸려져 있던 그림의 배경처럼 단조롭고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기 마련이다. 새삼 주위를 환기시켜 새롭다는 느낌을 받거나 그 장소가 가진 고유의 이미지 배후에 가려진 역사와 제도에 의문을 가지기란 힘들어진다. '낯섦'은 김지은에게 작업의 시작을 의미한다. 그 지역에 처음 발 들여놓는 타인이기에 가능하고, 또한 살아가기 위해 자신이 처해진 곳에 적응하는 고된 과정을 작업에 연결시켜 일종의 유희로 풀어내는 작가의 태도가 있기에 가능한 작업인 것이다. 경험을 통한 체험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론적 습득을 거쳐 탄생하는 김지은의 작품은 매번 바뀌는 집처럼 모양새는 달라질지언정 작업의 근저에 있는 환경을 읽으려 하는 방식은 유지하며 정체성을 정립한다.

주요전시 : <제13회 송은미술대상전>



전시일정	2013. 12. 19 ~ 2014. 2. 15
전시장소	송은아트스페이스(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로75길 6)
전시소개	송은문화재단에서 수여하는 송은미술대상의 대상선정을 위한 최종 후보 4인 작가 그룹전으로 강서경, 김지은, 박혜수, 차혜림이 참여한 전시이다.

주요전시 : < 제13회 송은미술대상전 >



주요전시 : < 제13회 송은미술대상전 >

전시 서문

주요 내용(요약)

김지은 작가는 1977년생으로 서울대학교 회화과 졸업 후 미국 크랜브룩 예술 학교에서 회화를 전공했다. 김지은 작가의 작업은 거주환경을 관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 주목하지 않았던 일상의 모습들을 '일상의 기념비'로 칭하며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공간에 새겨진 역사와 이야기들을 다룬다. 작가는 '답사'와 '리서치'를 병행하여 미디어에 의해 걸러진 제한된 경험을 넘어서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공간이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살펴왔다. 도시공간이 수많은 법규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관리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제도가 환경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성찰하며 작업을 전개해 왔다.

도심 곳곳에 펼쳐져 있는 방진막을 주목한 < 무지개떡 프로젝트>, 주차 문제와 이로 인한 규제로 주택가 골목 풍경이 새롭게 형성됨을 보여준 < 공동주택 주차장> 등에서 시작된 작가의 관심은 미국 체류시절 보았던 신속하고 저렴하게 대량의 주택을 짓는데 사용되는 방수방습용 랩 '타이벡(Tyvek)'을 통해 미국 도심을 조명하고, 각국의 무수한 공사현장에서 쓰이는 비계 또한 고층 건물을 위해 세워지는 도심의 이미지로서 작업에 등장시킨다.

김지은 작가는 이번 전시에서 '공사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에 주목하는데 이는 우리가 흔히 접하게 되는 공간이며 하나의 건물이 완성되기 이전에 필연적으로 보게 되는 풍경이다. 작가는 급성장한 한국의 역사적 배경에서 매일 도시 곳곳에서 벌어지는 재개발과 이로 인한 공사장 현장이 가장 흔하게 보게 되는 한국의 도심 풍경임을 주지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서울의 도시계획의 역사와 그로 인한 변천을 주목한다. 부모 세대가 경험한 서울 그리고 우리 세대가 현재 겪고 있는 서울의 모습이 서로 교차되는 이미지를 개발과 폐허의 시각에서 재조명하며 도시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